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韠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두시를 읽고 우연히 짓다

讀杜詩偶題

두보의 문장은 세상의 으뜸이라 杜甫文章世所宗
한번 펼쳐 읽으면 한번 가슴 트이네. 一回披讀一開胸
구렁에서 날랜 바람 스물스물 일어나고 神飆習習生陰壑
고종(古鐘)에선 하늘 음악 떠들썩 들리는 듯. 天樂嘈嘈發古鐘
구름 없는 벽공에 송골매 빨리 날고 雲盡碧空橫快鶻
달 밝은 푸른 바다 뭇 용들이 노니는 양. 月明滄海戲群龍
그대로 신선의 산길로 접어드니 依然步入仙山路
천봉을 가고 나면 또 다시 만봉일세. 領略千峯更萬峯

만월대

滿月臺

올라 보니 홀연 문득 마음이 슬퍼지니 登臨忽覺意悽悽
인간의 흥망성쇠 한결같지 않다네 興廢人間事不齊
궁궐 나무 서리 내려 가을 잎은 떨어지고 宮樹有霜秋葉落
토성엔 성가퀴 없고 저녁 구름 낮게 떴다. 土城無堞暮雲低
가련타 대궐 섬돌 나무꾼의 길이 되니 可憐崎陛成樵路
그 누가 대궐 못을 벼논으로 만들었나. 誰遣龍池作稻畦
이곳의 번화함을 그대여 묻지 마소 此地繁華君莫問
다만 이제 우짖는 밤까마귀 뿐이라네. 只今唯見夜烏啼

대한민국서예공모대전

윤태희 서예가 三體章 入選

月沼 尹泰姬 서예가 작품(전서, 예서, 해서) 三體章글씨

윤태희 서예가

윤태희여사(권태강 검교공파회장 부인)가 한국서예 미술진흥협회가 주최하는 제25회 대한민국서예공모대전에 3체장 입선하였다.

書는 그 사람의 표현이다. 이 말은 현대에 있어서 하나의 진리라고 할 수 있다. 무릇 書의 정제한자 그 정신이 바르고 필체가 수려한 자 그 인격이 고상하다.

그래서 서예는 현대 문화인으로서 누구나 해야 할 고양예술의 하나이다.

그리하여 동양고유의 서예를 통하여 우리의 지성을 높이고 인격의 완성과 정서의 순화를 기하는데 서예의 진의가 있는 것이다.

서예가 月沼 尹泰嬉씨(74세, 파평윤씨)가 올해 1월10일 한국 서예·미술진흥협회 주최, 三體章(전서·예서·해서)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다. 윤 서예가는 일찍이 명문인 한학자 집안에 태어나 유년시절에 부친으로부터 한문을 배웠으며 이어 서울 인사동에 있는 남덕서예학원 원장 한석봉 선생에게 5여 년간 師事받아 꾸준히 연마했다. 2008년 7월 13일 한국서예진흥협회 주최 제18회 전국서예백일장에 한문예서 작품을 출품해 입선했으며, 또한 同年 12월 21일 한국서예진흥협회 주최 제22회 대한민국 서예공모대전에 한문 전서를 출품해 入選했다.

이에 올해 제25회 同공모전에 한문 삼체장(전서·예서·해서)를 출품해 삼체 共히 입선의 영광을 차지해, 이제 앞으로 역량있는 서예가, 신예작가로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자료제공 : 권태강 검교공파종회장〉

해 설

● **景行維賢 克念作聖(경행유현 극렴작성)**
선인의 행실을 높이보고 이를 배워서 실행하면 즉 현자도 될 수가 있다.
잘 전인(前人)의 도를 생각하여 덕을 몸에 닦으면 성인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도 불가능 한 것은 아니다.

● **德建名立 刑端表正(덕건명립 형단표정)**
사람이 그 덕을 잘 닦으면 이름은 자연히 세상에 알려지기 마련이다.
속에 덕을 쌓으면 밖의 표정도 단정하여지고 표정이 단정하면 마음도 자연히 바를 것이다.

● **空谷傳聲(공곡전성)**
소리를 전한다는 것은 빈골짝에서 소리를 지르면 그 울리는 소리가 골짝 사이에 퍼져서 소위 산울림이 생긴다는 것이다. (즉 좋은 일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뜻)

우강 권이혁장관 에세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Wer lieven kann, ist glucklich)라는 말은 헤르만 헤세(Hermann Hesse, 1877-1962)가 <마르틴의 일기>(1918년 집필)에서 남긴 말인데 필자가 무던히 좋아하는 구절이다.

요즘은 결혼주례를 맡지 않고 있지만 한때는 거의 주 3회 정도 주례를 맡기도 했다. 10여 년 전부터 이 구절을 주례사에 꼭 포함시켰다.

헤세는 <데미안>(Demian, 1919), <크눌프>(Knulp, 1915) 등 많은 작품을 남겼으며, 단편집·시집·우화집·여행기·평론·에세이·서환집 등 다수의 간행물을 발표했다.

헤세는 4세부터 9세까지 스위스의 바젤에서 지낸 것 외에는 대부분 독일 남부의 칼프에서 지냈다. 1890년 라틴어 학교에 입학하고 다음해에 신학교에 들어갔다.

그러나 천성적인 자연주의자로서, 개성에 눈뜨면서 미래의 시인을 꿈꾼 해세는 신학교의 속박된 기숙사 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그곳을 탈주했으며, 한때는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노이로제에서 회복된 후 다시 고등학교에 들어갔으나 1년도 못되어 퇴학하고 서점의 견습 직원이 되었다.

그 후 한 동안 아버지의 일을 돕다가 병든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칼프의 시계공장에서 3년간 일하면서 문학수업을 시작하였다. 1895년 가을 튀빙겐의 서점에서 다시 견습 점원이 된 헤세는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하여 처녀 시집을 출간했으며, 산문집을 발표했다.

그는 1904년에 9세 연상의 피아니스트와 결혼하여 스위스로 이주한 뒤 시작에 전념하였다, 1923년에는 스위스 국적을 취득하였다.

그 후 그가 걸어온 생애 중에는 인도 여행으로 동양에 대한 관심이 깊어진 일, 제 1차 세계대전 중 독일의 문단과 출판계로부터 애국주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비난과 공격을 당한 일,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정신병, 자식의 신병 등 가정적 위기를 맞으면서 여기에서 탈출하려고 작풍(作風)이 달라진 일이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인간성을 말살 시키려는 나치의 광신적인 폭정에 저항한 일 등 많은 파란을 겪다가 1962년에 세상을 떠났다.

해세의 연애론은 유명하다. 소년기의 철없는 사랑, 장년기의 애욕의 사랑, 만년기의 만인을 위한 사랑 등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의 작품은 그의 연애편력을 토대로 한 것이며, 결국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데서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경지에 도달하고 있다.

필자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가 실려 있는 <마르틴의 일기> 원문을 접한 일이 없다. 10여 년 전에 폴카 미헤르(Volker Michels)라는 편집인이 '헤세의 사랑'을 주제로 연구하고, 헤세의 여러 작품과 시·평론·수상 등에 실린 것들을 정리하여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것을 일본 번역가가 번역하여 출판한 책을 만난 것이 인연이 되었다.

헤세는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디에서 기쁨을 찾고, 삶의 원천을 찾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며, 사랑한다는 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필자는 체험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를 값진 것으로 만들고, 기쁨에 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감정, 감각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점차 알게 되었다.

필자가 이 지상의 어디엔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봤을 때는 그들은 언제나 감정으로부터 만들어져 있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권력은 아무런 가치도 없었다. 돈과 권력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마음이 비참한 사람을 많이 보았다.

아름다움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대단히 아름다운 남녀 중에도 마음이 비참한 경우가 꾀 보였다.

아름다움은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찬미할 수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음 깨달았다.

행복은 사랑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우리들은 마음속에서 행복을 추구한다. 사랑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을 뿐이다.

세상의 불행은 사랑하는 마음의 능력이 손상되는 데서 생긴다. 예수도 부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자의 마음 속 깊이 있는 것 즉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했다.

한편, 헤세는 20세기의 문명 비판서라고 할 수 있는 미래소설 <유리알 유희>(Das Glasperienspiel, 1943)라는 작품으로 1946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LG 3DTV 올해 세계1위 오를 것"

권희원 LG전자 HE사장

LG전자에서 TV사업을 맡고 있는 권희원 HE사업본부 사장은 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글로벌 3차원(3D) TV시장에서 25~27%를 점유해 반드시 세계 1위가 되겠다고 밝혔다.

LG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글로벌 3D TV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0%대로 세계 1위이고 LG전자가 18~20%대로 2위이다. 아직 격차가 10% 포인트 이상 나는데 올해 1위를 하겠다는 것은 얼핏 무리한 의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초 LG전자 점유율은 6%, 삼성전자가 50%로 격차가 훨씬 더 컸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달성 가능한 목표라는 것이 권 사장의 설명이다.

권 사장은 "대형 3D TV 라인업을 더 늘리고, 더욱 가볍고 편리한 3D 안경을 계속 개발하면서 3D콘텐츠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LG의 신제품 중 70%를 3D TV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 사장은 "3D TV 보급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볼만한 3D 콘텐츠"라며 "지난해 말 디즈니와 제휴를 통해 극장 개봉일에 맞춰 '라이온킹' 3D를 LG 3D TV에서 내놓은 것과 같이 훌륭한 3D 콘텐츠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전략을 밝혔다.

또한 이번에 세계 최대 55인치 모델로 첫 선을 보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에 대해 권 사장은 "OLED 패널이 화질과 대형화 측면에서 모두 경쟁사(삼성전자)보다 뛰어나고 가격경쟁력도 높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2012. 1. 12. 정재윤 기자 인용〉

신간안내

竹庭 權寧植옹 遺稿 '竹庭文集' 發刊

본원의 자문위원인 권오창씨와 오종·오운 3兄弟가 부친 권영식 옹의 遺稿를 정리하여 '竹庭文集'을 웅그래픽 刊으로 지난해 12월 발간했다.

이 문집은 3권으로 되어 있으며 6·25사변시에 家宅과 함께 보관 되었던 유고가 소실되었으나 남아있는 수십편의 '詩文' 등을 권오창씨가 자료정리를 했으며, 부친이 쓴 글자체, 漢文字로 다시 제책, 편제 하여야 했으나 현재의 활자조작으로서는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부친의 원필체 그대로 수록해 발간했다.

冊의 내용을 보면 총 197페이지에 1권에(詩文), 2권(書信, 日記, 序文, 跋文, 祭文, 其他), 3卷(行狀, 墓碣銘, 座右銘, 後識) 등이 수록되어 있다.

특히 竹庭公의 詩文은 자연주의 시상(詩想)에 입각하여 四季節의 변화에 따라 情狀한 생각을 격조 높게 表出해주고 있다.

公은 일제강점기에 영주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한학을 수학했으며, 민선인 安定面長과 국민회의 안정지부장을 두루 역임했으며, 이어 小南詩會를 창립해 자연주의 음유시인(吟遊詩人)으로 활동했다. 유도회 풍기지부장을 지냈으며 충효교실을 개설해 청소년교육 및 한문학 연구와 저술, 번역, 발간에 힘썼으며 98년에 시조묘소 수임을 했다.

竹庭 權寧植옹의 '竹庭文集' 冊

2007년 3월 9일, 93세, 별세하여 문중장(門中葬)으로 갈산리 지곡 선영하에 안장했다. 영식옹은, 슬하에 4남매를 두었으며, 장남 五昌씨는 노동부 지방사무소장, 차남 五宗씨는 영주시청 지역농업기술센타장, 삼남 五運씨는 중앙선관위시 사무국장,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했으며, 장녀 五姬씨는 영천에 이원주씨에게 출가했다.

〈편〉

이 달 의 시

박꽃 피었습니다

청하 권 대 욱

강변에도 박꽃 피었습니다

언제는 숱한 사람 오갔던
이 땅에서 피워낼 미소도 아파지더니
가지런한 웃음 하나만 가진
별 밤, 속없는 존재는
외줄기 늘어진 새끼줄 타고
하늘 오르는 허욕 하나 없이
제 생명줄 닿는 곳에서만 피워왔기에
초가을 날까지는 근심하지 않았습니다

팔월 열 나흗날, 이 동네 사람 닮은
용마봉 그림자 길게 흐르는 여기
기어이 하늘빛 어설프지마는
제 육신 속에 갈무리해 두었던 미소 하나로
이 밤에 피었습니다

정말 이 동네 미소 같은 박꽃 피었습니다